OPEN ACCESS
CC BY ND

한국학 제48권 제4호 통권 181호 239~270쪽
doi: 10.25024/ksq.48.4.202512.239

연구논문

선비 기독교인 조병국의 삶과 종교 이해

이혜정
영남신학대학교 교양학과 부교수, 종교학 전공
kamihye@naver.com

Ⅰ. 시작하는 말
Ⅱ. 선비 한학자: 유교적 건국이념
Ⅲ. 독립운동가: 청송 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Ⅳ. 교육가: 유교 교육 및 기독교 학교 설립
Ⅴ. 토착적 기독교 이해: 외유내기(外儒內基), 외기내유(外基內儒)
Ⅵ. 맺음말

Ⅰ. 시작하는 말

이 글에서는 선비 한학자이자 독립운동가, 개신교 신자인 조병국(趙炳國, 1883~1954)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한다. 특히 유교 지식인의 기독교 수용 과정을 통해 한국적 기독교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병국에 관한 기존 연구는 2024년에 처음 등장했다. 2022년 7월, 조원경 목사[1]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1만여 점의 자료 중 조부 조병국의 기록물이 공개되었고, 2024년 12월에 자료 일부를 해제한 두 권[2]의 연구 저서가 발간되었다. 따라서 조병국의 문헌을 해제한 자료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 분석 연구 방법과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그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병국의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성오(成五), 호는 해창(海蒼)이다. 그는 1883년 청송군 현서면 원복동(현 청송군 안덕면 복리)에서 출생하여 1916년 안동 협동학교(3년 과정)[3]에 재학하면서 33세 무렵 기독교에 입문했다. 아쉽게도 그가 기독교에 입문한 계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입문하고

---

1 조원경 목사는 경북 하양 무학로교회(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담임목사이다. 무학로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 삼남연회 대구지방 소속이다.

2 조병국(저), 서현경(역), 『海蒼遺稿』(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a); 조병국(저), 박규홍(역), 『海蒼遺稿 別集』(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b). 이 자료의 발간 이후 두 편의 연구 논문이 등장했다. 2025년에 안광덕과 이혜정은 조병국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 토착적 기독교의 면모를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했다. 안광덕, 「조병국 영수가 유교와 초기 개신교 만남에서 보여준 삶과 토착화 신앙」, 『경안노회 초기 교인 독립지사 이상동 장로, 조병국 영수 연구포럼 자료집』(안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2025.3.13), 4~25쪽; 이혜정, 「선비 기독교인 조병국의 『해창유고 별집』 연구」, 『2025 대순사상학술원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25.4.12). 이 글은 이혜정의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기존 연구에서는 조병국이 기독교에 입신한 계기를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수학한 협동학교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 협동학교는 1917년에 폐교되었다고 하니 약간의 오류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병국은 1916년부터 협동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수학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병국, 앞의 책(2024b), 13쪽.

2년 만에 1918년부터 수락교회 영수(領袖, 초기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4]했고, 1921년에는 6개월 동안 복리[5] 마을에 파송되어 복동교회 설립에 참여했다. 당시 영수로 활동을 시작할 때 조병국은 세례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병국이 영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적지 않은 나이(35세), 한학자, 유학자 집안의 배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1919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청송 화목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을 복역했다. 1920년 5월에 영친왕의 가례로 감형을 받아 출소하여 1921년 복동교회를 설립했고, 1922년 수락교회에서 순행목사 방혜법(邦惠法, Herbert E. Blair, 1879~1945)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6] 그는 교회 설립을 반대한 문중(門中)으로부터 제명되었으며, 수락동 사립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다가 1929년 동맹휴학사건으로 사임했다. 이후 그는 구산리로 이거하여 구산교회[7]로 이명했고, 1937년에 아들 조성대의 관례를 유교와 기독교를 접목하여 치렀으며, 1955년 72세로 별세했다. 조병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창기념사업회는 1967년 조병국의사기념비와 기념공원을 건립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필자는 조병국의 생애와 활동을 분석하면서 '선비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는 올곧은 '한학자 선비'로서 벼슬이나 관직은 없지만 평생 유

---

4 수락교회(편), 『主後 1952年 水洛敎會 四紀』(1952a), 14쪽. 수락교회 사기에는 1918년 영수 조병국의 이름이 있다. 조병국이 몇 년부터 영수로 활동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영수는 한국개신교 초기에 존재했던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국인 목사가 부족했던 시대에 실질적인 개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다.

5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는 복1리와 복2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래 현남면에 있다가 1914년 현서면으로 편입, 1988년에 군조례에 의해 복동이 복리로 개칭되었다. 디지털청송문화대전(https://cheongsong.grandculture.net) 참조.

6 수락교회(편), 「3회 당회록」, 『主後 1952年 水洛敎會 堂會錄』(1952b).

7 구산교회는 현재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100-1 주소지에 위치한 화목교회이다.

교 경전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유교 정신이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인지하고 유교와 기독교를 나름 접목한 내용을 그의 저술에 남겨 놓았다. 유교와 기독교를 접목하고 연결하여 표현한 조병국의 글에서는 두 가지가 상충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연결된다.

이 글에서는 조병국의 저술을 통해 선비 기독교인의 토착적 종교 이해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선비 한학자 조병국의 올곧은 선비 정신과 유교적 독립국가 건설의 비전을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항일운동가 조병국의 청송 만세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활동과 그 사상적 기반 등을 분석했다. Ⅳ장에서는 교육가적 측면으로서 한학과 기독교 학교 교육에 헌신한 활동들을 분석했다. Ⅴ장에서는 조병국이 유교와 기독교를 융합한 내용을 그의 문집을 통해 분석했다. 유교와 기독교를 접목하여 설명하는 그의 사상은 '외유내기(外儒內基), 외기내유(外基內儒)'로 표현할 수 있다.

Ⅱ. 선비 한학자: 유교적 건국 이념

조병국의 『해창유고(海蒼遺稿)』를 해제한 서현경은 연구사적 의미를 다섯 가지로 설명[8]했다. 그중 '선비 한학자'의 특징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 전 한 선비가 겪는 일상생활의 정서를 전해 준다. 「누에치기」, 「섣달그믐에 내리는 눈」, 「새로 지은 초당이 완성되어」, 「복동에서 부모님 묘소를 찾아뵈었을 때 울며 쓰다」 등과 같이 조병국이 남긴 제목의 한시와 글에는 소박한 일상생활의 감각들이 스며들어 있다. 조병국이 가까운 이

8 조병국, 앞의 책(2024a), 14~28쪽. 1. 100년전 일상의 생활정서, 조병국의 삶, 2. 근대의 길목에서 선 한시 작가, 조병국의 선택, 3.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림, 조병국의 사유, 4. 망국의 현실 속 조선의 백성, 조병국의 슬픔, 5. 광복된 세상의 대한 국민, 조병국의 열망과 우려.

들에게 보내고 화답하는 편지글을 읽다 보면 선비들이 글로서 사귀고 교류하는 풍취를 알 수 있다. 둘째, 조병국은 한문 글쓰기로 그의 생각과 풍류를 펼쳐 놓는 조선 최후의 지식인이다. 갑오경장 이후 과거 철폐로 한문으로 출세하는 길은 막혔으나 그의 문집에는 여전히 선비 정신이 담겨 있다.

과연 조병국은 조선 후기 '선비 한학자'라 표현할 만하다. 사전적 의미로 선비란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이',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며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난 이'라고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조병국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그는 매일 한자 3,000자 쓰기를 하고 평생 유교 경전을 공부[9]했으나 출세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경전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며 담박한 일상을 살았다.

필자는 조병국이 가진 선비 정신이 가풍(家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병국의 가문을 살펴보면 대대로 벼슬에 집착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함안 조씨의 시조인 조정(趙鼎)은 고려의 개국 벽상공신(壁上功臣)이었으나 그로부터 10대 조열(趙悅)은 고려가 공민왕 때 멸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고 조선의 출사 권유도 거절했다. 또한 조열의 손자 조려(趙旅)는 생육신으로 단종이 죽자 이조판서 벼슬을 버리고 함안에 내려와 낚시질로 여생을 보내며『어계집(漁溪集)』을 남겼다. 조려의 손자 조삼(趙參)은 종3품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자신의 호를 딴 정자 무진정(無盡亭)을 지었다[10].

함안 조씨 일가가 청송에 자리한 것은 조삼의 아들 조정백(趙庭栢)에 의

---

9 조병국의 손자 조원경 목사는 조부와 동일하게 지금도 매일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한자 쓰기를 하고 있다. 조원경 목사는 오래전부터 유교경전 공부와 한자 쓰기를 해 왔으며 한자쓰기는 가느다란 세필로 먹, 벼루를 갖추어 쓴다. 조원경 목사가 운영하는 천래학당에서는 현재 10명 정도의 학동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대학』,『논어』,『중용』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10 조병국, 앞의 책(2024b), 11~12쪽.

해서이다. 조정백은 청송도호부 안덕현으로 입향하여 임진왜란 때 안덕으로 이거했다. 조준도(趙遵道, 1576~1665)는 정묘호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천거되었으나 곧 사퇴했다. 조춘경(趙春慶, 1714~1786)은 진사 합격 후 문과 시험을 준비하던 중 사도세자의 죽음을 듣고 목숨을 걸고 세자궁에서 통곡하며 과거를 단념하고 여생을 보냈다. 조춘경의 5대손 조현욱(趙炫郁, 1854~1922)[11]은 조병국과 함께 청송 화목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고 일제 치하의 삶을 거부하여 1922년 2월 19일에 청송군 수락리 가마소(부연)에 투신했다. 조병국이 어릴 적 한학을 사사한 조독호(趙篤祜, 1843~1914)[12]는 1896년 감은리 전투를 비롯한 청송 지역 의병투쟁에 참여한 인물이다. 함안 조씨 중에는 조독호와 함께 의병투쟁에 참여한 이가 다수[13]이며 조병국은 조독호를 통해 한학과 애국 정신을 배웠다고 한다.

바다의 노중련도 부연의 현욱도 붉게 빛나니	海連釜郁出紅暉
그대가 보여 준 큰 충의는 옳지 그른게 아니었네	君忠大義是非非
그대에게 묻고 싶네 지금의 대한은 어디로 가는가	問爾今韓何處去
물고기와 새들도 제 살 곳에서 마음껏 살아가건만	魚淵任躍鳥林飛[14]

---

11 조현욱은 조병국과 청송 화목장터 만세운동 주동으로 2년형을 받았으며 출옥 후에는 수락리의 가마소(부연)에 투신했다. 1968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조현욱이 남긴 글에는 "오랑캐의 […] 신민이 되느니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는 표현이 있다. 위의 책, 173쪽.

12 조독호는 조병국의 재종형으로 의병활동으로 2001년 건국포장 추서를 받았다. 그는 『회간집』, 『독서찬요』를 비롯하여 14권 2책을 저술한 큰 학자이다. 『독서찬요』에 따르면, 조독호은 『주자대전』·『회재문집』·『퇴계문집』·『대산문집』을 항상 애독하기에 『주자대전』의 어과 『대학』·『맹자』의 혹문과 『논어집주』·『맹자집주』·『중용장구』와 『회재문집』의 구경연의, 『대학혹문』·『퇴계문집』의 언행록, 『대산문집』의 실기에서 중요한 항목을 발췌해 14개 항목으로 분류해 편찬했다고 했다. 디지털청송문화대전 참조.

13 권대웅, 「한말 의병활동의 전개와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재개관 기념 학술회의』(2023.9.1).

14 조병국, 「정축년(1937) 9월 10일 승와공의 문집을 보고 송도를 회고한 시어를 되새기다.

이 시는 조병국이 조춘경과 조현욱을 애도하는 내용이다. 첫 행의 '노중련(魯仲連)'[15]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인물로 진(秦)나라가 무력을 앞세워 신민이 될 것을 강요하자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저항했다. 조춘경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듣고 출세를 포기하고 낙향했으며, 조현욱은 노중련처럼 일제 신민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투신한 인물이며, 조병국은 이 둘을 시로써 추모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병국의 선조들은 유교의 '충군애국' 정신을 삶으로 체화한 이들이 많다. 망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조병국의 삶에게 충군애국이 나타난다. 조병국은 이들을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마음을 선조들에게 글로써 묻고 마음의 벗들에게 글로써 서로 화답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조병국의 문집에는 교류와 추모, 애도의 글이 많으며 가장 많은 주제는 '충군애국'이다. 조병국이 직접 만나 교류한 이들[16]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열사(烈士)와 의사(義士)를 추모 애도하는 글도 있다. 또한 조병국은 삼일운동으로 함께 감옥생활을 했던 이들과 문필로 교류했고 송기식, 충렬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17] 여운형[18]과의 편지 화답도 문집에 남겼다.

> 수레와 관복에 얽매이지 않고 칼과 톱의 형벌이 가해지지 않으며 다스려짐과 혼란함을 알지 못하고 좌천이나 승진의 기별을 듣지 않아 풍진에 개의치 않는다.

부연의 물가를 들러 시를 짓다[丁丑九月十日 見升窩公稿 懷松京懷古字過釜淵上作]」, 앞의 책(2024a), 173쪽.

15 위의 책, 173쪽.

16 조병국, 「송원에서 여러 벗들과 시를 주고 받다, 송학서당에서 여러 노인들과 수창하다」, 위의 책.

17 조병국, 「세 분의 충렬 의사를 봉안하는 글, 세 분의 충렬 의사를 애도하는 만시」, 위의 책.

18 조병국, 「여운형의 시에 화답하다」, 위의 책.

이는 본래 장부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니, 내가 곧 이렇게 한다[19].

주목할 만한 것은 1938년에 항일운동가 최자남(崔子南, 1876~1933)[20]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병국이 두문동 72현[21]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조선이 건국되자 태학생 임선미(林先味)·조의생(曺義生)·성사제(成思齊)·박문수(朴門壽)·민안부(閔安富)·김충한(金沖漢)·이의(李倚) 등 72인이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모여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을 일컫는 명칭이 두문동 72현이다. 태조 이성계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과거를 시행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고 경덕궁 고개를 넘어간 곳이 부조현(不朝峴)이다. 조병국은 편지에서 두문현 72인, 부조현을 언급하며 이들이 '인(仁)을 구하여 얻은 이들이며 효(孝)와 충(忠)을 위해 죽는'[22] 이들이라고 항변한다.

조병국은 왜 두문동 72현에 관심을 가졌을까? 필자의 추측으로는 두문동 72현의 면모가 조병국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비로서 두 왕조를 섬기지 않으며 벼슬과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충군애국을 실천하며 사

---

19 조병국, 「갑신년(1944) 5월, 수락에 잠시 머물다[甲申五月留暫水洛]」, 위의 책, 245쪽.

20 최자남은 항일운동가 최세붕으로 1919년 8월에 조선총독 사이코 마코토 암살 계획을 세운 강우규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폭탄 반입 보관을 도왔으며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참조.

21 두문동 72현은 조선 후기 영조에 와서 고려의 충신으로 현창되었다. '72현'이란 숫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72인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박영웅, 「조선 후기 '두문동 72현'의 인식 형성과 변천」, 『한국사학보』 98(2025), 225~227쪽.

22 "저는 늘 우러러 경모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 고을에 부임할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 파리의 성에 도착한 지 이십 일도 못 되어 먼저 새문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개성과의 거리가 팔십 리로, 불조현의 옛터가 있고, 두문동 72현의 유허도 있었습니다. 만약 감격하여 흥기시킬 만한 여운을 남긴 것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仁을 구하여 인을 얻은 분들이었기에 원망과 후회가 없었을 것이니, 72현은 孝를 위해 죽는 자식, 혹은 忠을 위해 죽는 신하에 뜻을 두어, 각각 죽을 직분을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72현의 지조였습니다." 조병국, 「최자남에게 보내는 편지」, 앞의 책(2024a), 257쪽.

는 면면이 그러하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조병국은 경기도 개평군 광덕면에 가서 두문동 72현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다. 조병국은 이곳에 '강서헌(講書軒)'을 세워 유교 경전과 현시대의 학문을 위한 거점을 세울 계획을 알리며 최자남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교의 정신으로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 무대에 서도록 하는 원대한 희망이었다. 즉, 조병국은 유교적 건국 이념을 꿈꾸었다.

> 지금 땅을 파서 대를 만들어 '강서헌(講書軒)'이라고 편액하고서, 곧장 경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서오경(四書五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전서(朱書大全)』, 『대학연의(大學衍義)』, 『통감강목(通鑑綱目)」 및 기타 도(道)를 수호하는 책 등을 구입하여 서실(書室)에 비치하게 하고, 더 나아가 현 시대의 종교 서적 및 여러 종교와 문명학(文明學), 유럽의 철학, 화학, 과학, 물리, 천문, 지리 등의 서적을 구입하여, 매일 엄청난 양을 읽고 그 뜻을 분석하여 강하를 터놓은 듯 문장을 짓게 함으로써, 당세의 선비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훗날의 여러 생도들이 연구하는 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대 의향은 어떠신지 감히 여쭙습니다.
>
> 이미 국가의 강령은 세웠고 강령에 앞서 독립국을 세움에 의를 물어 호쾌하게 세계대회에서 큰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동양을 벗어나 서양의 수준으로 진입할 준비 일은 마쳤지만 부족한 것은 권세이니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인년(1938) 5월에 병국이 황공한 마음으로 삼가 올립니다.[23]

인용문에서 조병국이 꿈꾸는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조병국은 두문동 72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동지들을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조선의 미래를

---

23 위의 책, 258쪽.

논의하고자 최자남에게 자문을 구한다. 아마 조병국은 최자남에게 함께 합류할 것을 권유하는 속내를 가진 것 같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공자가 인본주의적 사상을 설파한 것처럼 유교 이념을 설파하고 나라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을 조병국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병국은 평생 영남권에 거주했는데, 경기도 두문동 72현 방문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였다.

천지 안에 새로운 조선을 내어오니
새로운 조선이 바로 새로운 천지라
하늘이 골라 주고 땅에 세워서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게 우리나라를 새로 만드네
친애하여 또한 원수도 없어져서
인민 우리 삼천 인민 우리 삼천만
다섯 배 열 배 힘을 더해 자유 얻어 살지라
인의를 토대 삼고 예양을 숭상하여
우리부터 먼저 정심하고 수신제가하여 나라를 통치하면
세계와 더불어 동화하고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합류하세[24]

「조선건국의 국가」에서 조병국의 새로운 조선은 유교이념에 기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관직 없이 지방 선비로 살면서도 나라의 형편을 살피며 미래의 국가 비전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그가 지은 「조선건국 국가」에는 기독교적 내용은 전혀 없다. 인의(仁義), 예양(禮讓), 정심(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유교 핵심 이념에 입각하여 나라 통치의 기틀을 그리며 유교적 건국을 꿈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4 「조선건국의 국가(朝鮮建國國歌)」, 위의 책, 228쪽.

조병국의 유교적 건국 이념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기 힘들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들이 대거 등장하여 지난 500년 동안 유교가 차지했던 자리를 대체하려는 형국에서 조병국의 유교적 건국 이념은 양반이 아닌 일반 대중을 포섭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했다. 따라서 조병국의 유교적 건국 이념은 유교적 이상주의의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Ⅲ. 독립운동가: 청송 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조병국 의사는 청송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청송 화목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2년형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1운동으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경우는 주동자이거나 과격 행동자에 해당[25]한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3.1운동으로 체포된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에게 주로 구형된 형량은 1년이었고 2년 이상 형량을 받은 이들은 수감자 중 9.97%에 해당[26]한다. 즉, 2년형은 삼일운동 우두머리이자 핵심 인물로 판결된 경우이다. 조병국의 2년형 처벌은 그가 청송 지역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주동자이자 핵심 인물임을 증빙한다.

조병국의 항일활동 흔적은 1919년 3월부터 발견된다. 그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집안의 재산을 처분했고, 3월 26일 청송 화목장터에서 조현욱·신태휴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병국이 주민 50여 명을 이끌고

25 김승태, 「재판 속의 3.1운동」, 『기독교사상』 711(2018), 24쪽.

26 3.1운동 주동자 및 과격 행동자 협의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 중 2년 이상 형량을 받은 사람은 총 77명으로 9.97%에 해당하며 1년에서 1년 11개월 사이의 형량을 받은 이는 340명으로 44% 수준이다. 박경목, 「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성」, 『인문과학연구』 26(2018), 56쪽.

행진하며 화목장터에 이르자 수백 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이에 순사가 탄압하자 피신했고, 조현욱·신태휴는 체포되었다. 3월 27일에도 조병국은 말을 타고 주민 10여 명과 행진을 시작하여 화목장터에서 600여 명이 운집했으며, 그는 청송경찰서에 연행되어 대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5일에 대구복심법원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으며, 그는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을 복역했고, 1921년 감형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조병국은 1929년 3월에 수락동 사립학교 교장직을 사임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항일운동과 연계한 동맹휴학이 유행했다. 조병국은 이미 3.1만세운동으로 불온 인사로 낙인되어 일경의 견제가 극심하여 교장직을 사직했고 거처도 현서면 천천동으로 이주했다.

1936년부터 조병국과 장자 조성대는 항일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1936년 12월에 조병국 부자는 일제의 부역을 거부하여 체포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령 지원병령 공포로 현서면의 청년 박찬석이 지원하자 일제는 군징집을 위해 도로 공사에 착수했고 지역민들을 부역에 참여토록 했다. 조병국 부자는 이에 불응하여 체포되었고, 1937년 봄까지 옥중에서 고문과 회유를 당했다. 또한 일경은 청년들의 전쟁 출정을 선전하려고 출정성원 집회에 지역주민을 참여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조병국 부자가 집회에 불참하자 일경은 가택수사를 단행해 국가보안법 저촉으로 서적을 압수, 소각하고 감옥으로 이송했다. 극심한 고문을 겪은 부자는 1937년 4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귀가하여 가정예배를 드렸다.

조병국과 조성대 부자는 무려 18번 청송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것은 조병국 부자가 일제강점기에 꾸준히 항일활동을 했다는 의미이다. 1938년 조성대 목사가 화목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경찰은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 다시 체포

했다. 당시 조성대 목사는 다니엘서 1장 8절[27]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유대민족이 이민족의 포로된 성경의 배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성대는 경찰의 회유에도 뜻을 바꾸지 않고 온갖 고문을 겪고 그해 9월 17일에 석방되었다.

1943년에는 교회 종과 창고를 헌납하지 않은 건으로 조병국 부자를 다시 체포했다. 일제는 교회 종을 공출하고 교회 창고를 점유하려 했으나 조병국 부자가 거부하자 체포하여 고문과 회유를 가했다. 극심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자 결국 경찰은 조병국을 정신이상자로 처리했고, 부자는 1943년 5월 20일에 귀가했다.

조병국 부자는 자신들의 항일활동을 거창하거나 비장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항일운동가라고 해서 특정한 이념을 설파하거나 그의 행동과 신념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태도이다.[28] 실제로 조성대 목사는 항일활동, 신사참배 거부에 관한 언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29] 조병국은 항일활동에 대한 발언을 히지 않았는데 조성대를 통해 짐작할 뿐이다.

---

27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주인공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으로 이방나라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인물이다.

28 "나는 일본 경찰의 특별 수사를 매월 7, 8회씩 받게 되었다. 그들은 내 죄목이 선친께서 삼일운동에 투쟁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것, 나 스스로는 지원병 징용에 반대하고 화목교회에서 다니엘을 주제로 설교한 것, 수락교회 건물과 성종 헌납 공문에 대한 반대 문서를 면장과 주재소 일본인 부장 죽화에게 발송한 일 등이라고 했다. 또한 미행죄까지 적용하여 외출이 금지되었고 청송경찰서에 18차례 수감되어 고문도 받게 되었다." 조병국, 「조성대 목사 회고록」, 앞의 책(2024a), 467쪽.

29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본 천황도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실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를 범하라는 것이다. 해방 후에 우리의 신사참배 거부와 관련해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잡지사에서도 찾아와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신자로서 당연한 본분을 행했는데 무슨 자랑인가 말인가. 교단으로서나 개별 교회로서나 사회적으로서나 자랑할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책, 469쪽.

조성대에게 항일운동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절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한 것이니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한편 조성대는 기독교 변절자들의 과오를 쉽게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들의 변절을 언급하며 해당자들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회고에 따르면, 변절자들은 비록 훌륭한 인격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들이지만 일제 탄압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여 양심은 괴로울지라도 육체는 고통이 없었던 이들이라고 한다. 조성대가 실명을 밝힌 이들은 홍택기 총회장, 김길창 부총회장, 신후식 경북 노회 교구장이다. 조성대는 이들의 후손이 여전히 지금도 교계 지도층에 속해 있으며 후손들이 감히 자신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즉, 변절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한편, 인간적으로 수긍하면서도 그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담담히 밝힌다.

조병국 부자의 항일활동 중 주목할 것은 시온산제국운동과의 관련성이다. 시온산제국운동은 박동기 전도사[30]를 중심으로 1940년대 청송 지역에서 발발한 집단 신사참배 거부운동이다. 박동기 전도사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1944년 4월 25일에 시온산제국 건국을 선언하고 1945년 4월 건국예배[31]를 드렸다. 이들은 신사참배 거부를 넘어 일본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제국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하고 행동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45년

30 박동기 전도사는 1937년 당시 주변의 세 교회(금성면 산은교회, 제호동교회, 의성 보양면 삼산교회)의 영수로 시무했다.

31 시온산제국운동 추종자들은 1943년부터 과격한 행동을 했다. 일본기와 신도상징물을 소각하고 자녀들의 일본식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일본의 패망과 연합국의 승리를 예언했다. 또한 독립선언과 헌법 제정, 일본 총독을 포함한 600여 명의 관리를 임명하고 연합군 상륙을 축하하기 위해 시온산제국 국기 1,600여 개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정중호, 「시온산 제국 기독교인의 항일운동」, 『신학사상』 129(2005), 2~9쪽.

5월 21일 일경에 체포되었다.

조병국의 장남 조성대는 초창기 시온산제국운동에 참여했다. 박동기는 조성대의 외종형으로 두 사람은 1922년 10월 18일 청송 수락교회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함께 조병국에게 한학을 수학한 절친한 관계이다. 두 사람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함께 하기로 하고 1942년 4월 18일에 일장기를 소각하며 예배를 드렸다. 1943년 10월에 박동기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하며 조성대의 집에서 추종자들이 모여 시온산제국이라 명명했다.

이때부터 조성대는 박동기와 거리를 두고 결별했다. 조성대는 박동기의 신앙 근본이 변절했다고 판단했다. 박동기는 성도들을 심령 검사하고 주역과 정감록을 설파하며 예수재림 임박을 예언했고 자신을 지상태평왕의 대리자로 두고 조성대를 부대리 왕 칭호를 제시했다. 조성대는 이를 거부했고 그와 점차 멀어졌다. 1944년 4월 25일에 박동기는 조성대가 없이 수락교회에서 100여 명이 모여 시온산제국 건국을 선포하고 연호와 국가, 국기를 공포했다.

시온산 제국운동은 종교계의 집단적인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기독교역사에서 신사참배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희귀하다. 손산문 목사[32]는 대부분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발생했지만 시온산 제국운동은 집단적인 신사참배 거부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대는 박동기와 1943년 10월 이후 결별했지만 초창기에 신앙활동, 항일활동의 맥락을 함께했다. 특히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방법론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결별 이후에 두 사람은 신사참배 거부운동, 항일활동을 각자 전개했다.

---

32 손산문 목사는 영천 자천교회 담임목사, 영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강사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역사위원회 소속이다.

완악한 원수에게 복수하지 못해 울음 삼키니　共泣頑讐難雪恥
감옥 안에서의 이런 풍류가 도리어 안쓰럽네　却憐幽獄此風流
날이 추워지니 소나무가 품은 절의를 알겠고　松含節氣知寒歲
가을 깊어지니 국화가 띠는 향기가 진동하네　菊帶馨香動九秋
영남의 잠랑들 떳떳한 마음 지니고 있으니　嶺外潛郎彝性在
우리 왕께서는 마음을 바꾸어 충정 알아주길　吾王庶改望瓊樓[33]

인용한 한시는 조병국이 만세운동으로 감옥에 억류된 상황에서 영남의 선비들과 문답 교류한 내용 중 하나이다. 7행의 '잠랑(潛郎)들'은 조병국과 뜻을 함께한 이들을 가리킨다. 즉, 재능을 품고도 오래도록 낮은 직책에 묻혀 있는 이를 가리키는 고사[34]이다. 조병국은 스스로 '잠랑'이라 일컬으며 자신과 같은 이들과 함께 뜻을 지키고 교류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

조병국의 열사, 의사들과도 교류했다. 때로는 직접 만나거나 글로서 교류했고, 감옥에서도 만나 교류했다. 그는 청송 출신의 의병 서종락[35]을 애도하는 시를 세 편[36] 남겼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태고사에 봉안한 의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를 애도하는 시[37]를 두 편 남겼다. 그 외에도 호남 의병장 이석

33 조병국, 「[附錄] 사촌 아우 조병국 성오가 만세운동으로 수감되었는데, 여러 훌륭한 동지들과 함께 「백망소견첩」을 보내왔기에 나도 시를 지어 화답하다[從弟成五 炳國 呼萬歲被囚與同事諸賢 有百忙消遣帖見寄]. 앞의 책(2024a), 78쪽.

34 한문제 때에 안사가 낭관이 되었는데 경제, 무제 때 이르러서도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에서 늙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문선』 권8 사현부주에 등장하는 고사이다.

35 서종락은 청송 출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후 고종이 의병을 모집할 때 활약했다. 1940년에 사망하고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36 조병국, 「서종락을 애도하는 만시」, 앞의 책(2024a), 215쪽, 218쪽, 221쪽.

37 조병국, 「세 분의 충렬 의사를 봉안하는 글」, 위의 책, 223쪽, 226쪽.

용의 아들인 이원영,[38]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운호,[39] 봉화 출신으로 영주 만세운동을 기획한 박인서,[40] 안동 출신에 예안면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금용문,[41] 의성 출신 독립운동가 박치환,[42] 대구 감옥에서 만난 강상범,[43] 송기식[44]에 대한 시도 남겼다. 또한 징병가는 지인을 위한 한시[45]도 있어 망국 백성의 한과 설움을 전달해 준다.

Ⅳ. 교육가: 유교 교육 및 기독교 학교 설립

조병국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교육은 유교 경전 교육과 기독교 학교 교육

---

38 조병국, 「벗 이원영을 방문하다」, 위의 책, 95쪽. 청암 이원영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일본군 전투로 체포되었다. 그의 부친은 호남창의군 의병장 이석용이며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이원영은 항일순국정신 고취죄목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자에 추서되었다.

39 조병국, 「송학에서 이운호를 만나」, 위의 책, 96쪽. 이운호는 안동 출신으로 안동군 예안면 삼일운동 참여로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신간회 안동지회 간사이며, 1930년에는 안동 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며, 1983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40 조병국, 「박인서가 찾아오다」, 위의 책, 104쪽. 박인서는 봉화출신으로 영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경성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징역형을 받았으며,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41 조병국, 「금용문에게 주다」, 위의 책, 111쪽. 금용문은 안동 예안 출신으로 예안면 만세운동으로 체포, 징역형을 받았으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42 조병국, 「정월 4일 박치환의 전장」, 위의 책, 195쪽. 박치환은 의성 출신으로 1919년 만세시위운동 이후 망명했다. 1923년 귀국 후에 청송군 현서면 화목교회에 봉직하다가 신사참배와 강제공출에 저항했다. 해방 후 1946년 화목교회 장로로 추대되었다.

43 조병국, 「강상범으로 애도하는 만시」, 위의 책, 209쪽. "대구감옥에서 만나 망국의 일을 슬퍼하다."

44 조병국, 「송기식을 애도하는 만시」, 위의 책, 209쪽. "대업을 함께 한 동지와 삼 년간의 옥중생활."

45 조병국, 「호가의 노래를 지어 북태평양으로 징병가는 서석규를 보내다[胡茄歌送徐錫圭北太洋]」, 위의 책, 274~275쪽.

이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유교 경전과 성경을 위주로 가르쳤다. 조병국은 그의 일생에서 3개의 학교를 설립·재건했다. 이는 영흥사숙, 안덕복음중학원, 화목중학교로, 모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학교였다. 영흥사숙은 머슴과 여종들이 많이 다닌 곳이고, 안덕복음중학교는 정규교육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학교였다. 또한 화목중학교는 폐지된 공립학교로서 지역의 교육 현실을 안타까이 여긴 사람들이 함께 재건한 학교이다. 조병국은 청송 지역의 교육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재산과 토지를 기부하여 설립과 재건에 참여했다.

조병국은 유교 정신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경전을 통하고 도를 논하는 새 문화로 어찌 살지 후손에게 덕업으로 열어"[46] 주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한다. 관직과 벼슬을 좇지 않고 살면서도 후대 교육을 위한 일에는 적극 개입하는 모습이다. 조병국의 문집『해창유고(海蒼遺稿)』에는 유교 경전 교육에 관한 글들이 여러 편[47]이다. 그는 유교 경전을 통한 가르침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했고 자녀들에게 유교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조성대 목사는 자신의 항일활동에 관한 언론사 취재는 거부했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남긴다고 언급한다. 조성대는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르면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조병국은 만세운동 혐의로 체포되고 출옥한 후 집안에 기도실을 짓고 1923년에 수락동 사립학교인 영흥사숙의 2대 교장이 되었다. 학생은 130여 명이었고 대부분 동네에 사는 권씨, 조씨, 신씨, 민씨 가문의 머슴과 여종들

---

46 조병국,「문암의 사군자 모임」, 위의 책, 246쪽.

47 조병국,「논어를 읽다」, 위의 책, 47쪽; 조병국,「맹자를 읽다」, 위의 책, 48쪽; 조병국,「오도봉」, 위의 책, 81쪽; 조병국,「봉하루」, 위의 책, 109쪽; 조병국,「아이들이 성현의 책을 읽도록 권면하며」, 위의 책, 115쪽; 조병국,「자식을 격려하다」, 위의 책, 121쪽;「사위 김재두를 독려하다」, 위의 책, 121쪽; 조병국,「사위 심군을 독려하다」, 위의 책, 122쪽; 조병국,「집안 살림에 화려함을 숭상하면 안 된다고 자식을 타이르다」, 위의 책, 146쪽; 조병국,「문암의 사군자 모임」, 위의 책, 246쪽.

이 많았으며, 그해 3월에 조성대가 입학했다. 조성대는 1928년 4월 12세에 영흥사숙을 졸업한 후 7년간 아버지께 한학을 배웠다. 조병국이 자녀를 일본어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조성대는 훗날 시온산 제국운동의 핵심인물인 박동기와 함께 한학을 배웠고 1937년에 대구 야간 동산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성경을 배웠다.

조성대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종교에 대해 열린 자세를 배웠다고 회고한다. 조성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은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사랑이며 세 개는 그 정신이 통한다고 배웠다. 조성대는 유교의 순천자흥(順天者興) 역천자망(逆天者亡)과 잠언 3장 1절[48]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유교의 하늘(天)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배웠다.

해방 이후, 조병국은 정계 입문 권유를 거부하고 교육에 몰두했다. 1948년에 조병국은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국회의원하기 위해 독립운동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거절했다. 그리고 조병국과 아들 조성대, 조성소는 뜻을 모아 "교육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해야겠다고 결심"[49]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해방을 맞은 1945년 8월 15일에 조병국 부자는 수락 간이학교를 재건했다. 교육받지 못하는 산골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관청과 협의 후 자치 학교를 재건하여 이듬해 1946년 4월 17일, 조성대는 수락학교 위원장이 되었다.[50] 그리고 1948년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교육과 복음 전파를 위해 안덕면에 안덕복음중학원을 설립하고자 지역유지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절차를 진행했다. 조성대는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재정 보충을 위해 세계기독교봉사회와 각종 구호단체에 요청하여 밀가루, 우유, 의류 지

48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9 조병국, 앞의 책(2024a), 479쪽.

50 조병국, 「조성대 목사 회고록」, 위의 책, 478~484쪽.

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조성대 목사는 현서면장의 요청으로 화목중학교 재건을 제의받았다. 당시 복동교회에 시무하던 조성대 목사는 거절하다가 아버지가 1919년에 만세운동을 했던 장소의 의미를 되새기며 재건을 결심했다. 조성대는 현서면 원복동 산229번지 6,600평 전답 중 묘지 3,000평만 남기고 매도하여 화목중학교 재건에 기부했다. 화목중학교의 초대 이사에는 조성대, 조성소 형제가 포함되었고 조성대는 초대 이사장이 되었으며 1964년 12월에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화목중학교는 사건에 휘말렸다. 결국 1967년 5월에 경북교육위원회 위원과 계명대학교 대학원장이 화목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회유했다. 조성대 목사는 거부했으나 군사정권에 반대한 교장 노일련 선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1973년 5월에 화목중학교는 폐교되었다. 폐교 이후 부채를 정리하는 데 조성대 목사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가문의 재산을 기부하여 재건한 학교를 대구계성학교 재단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재단신탁 부채를 해결했다.

폐교 후 한 달 뒤, 1973년 6월 27일 조성대 목사는 고령군 성산교회(당시 삼대교회)에 부임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목회하면서 조성대 목사는 고령군의 공무원들의 조언과 교육열 정으로 유아원을 설립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은 조병국에서 자녀들에게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Ⅴ. 토착적 기독교 이해: 외유내기(外儒內基), 외기내유(外基內儒)

조병국은 자신만의 감각으로 유교와 개신교를 접목했다. 문집의 한시와 수필 등을 읽어 보면 유교와 개신교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

러지고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병국의 손자 조원경 목사는 이러한 사상적 특징을 일컬어 '외유내기(外儒內基), 외기내유(外基內儒)'[51]라고 말했다. 즉, 겉으로는 유교이나 속은 기독교인 듯하고 또는 겉으로는 기독교이나 안은 유교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며 유교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조병국이 남긴 유언에도 유교와 개신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의 유언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52]인데 '두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두 국가란 바로 육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영혼이 장차 살게 될 천국이다. 즉, 조병국은 유교의 충군애국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개신교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라는 당부를 후손에게 남긴 것이다.

조병국의 독특한 토착화는 그가 지은 종교가사(노래 가사)에도 담겨 있다. 조병국은 1918년부터 1928년까지 수락교회와 복동교회의 영수(領袖)[53]로 시무하면서 교인들을 지도할 때 종교가사를 적극 활용했다. 종교가사는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54] 교인들은 낯선 서양의 찬

---

51 조원경 목사는 구술로 필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外儒內基, 外基內儒"라는 표현을 필자의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도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

52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조병국, 「조성대 목사 회고록」, 앞의 책(2024a), 470~471쪽.

53 디지털청송문화대전에 따르면, 해당일에 '조병국 의사 자택'에서 예배가 진행되었고 7월에 위철지 선교사가 초가 3간을 매입하여 복동교회가 발족되었다. 조병국은 1921년 5월 18일 청송군 현서면 복동에 교회설립을 위해 경북노회로부터 분립위원 위촉을 받았고 1922년 1월에 분립되었다. "(복동교회는) 1921년 7월에 선교사 안의와가 설립자로, 강원백을 조사로, 전도인 박낙현 전도로 김공명 조사, 윤은조, 조병국을 영수로, 김호철 집사로 취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교회사학회(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8), 217쪽.

54 한국교회 초창기에 활용된 노래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혜정, 「1957년 개신교 찬양집 『백합화』 연구: 교술성, 유동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2-3(2022), 40쪽.

송가보다 익숙한 우리 곡조에 가사를 지어 부르는 종교가사가 친숙했으며 시대적으로 문맹률이 높고 평균 학력 수준이 낮은 교인들을 고려하여 신앙 교육과 설교, 집회, 예배에 개사한 가사를 많이 활용했다. 노랫말은 초기 한국 찬송가의 토착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병국의 종교가사에는 교리와 신앙 전파의 내용과 더불어 유교적 교훈과 용어, 인물 등이 다수 등장한다.

조병국은 그의 문집에 종교 가사를 여러 편 남겼다. 그는 『종교가사별집』과 『찬양가』[55]에 총 68편의 노래 가사를 남겼다. 노랫말 중에는 당시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던 노랫말들도 있지만 조병국이 지은 노랫말이 상당수 있다. 작사자를 일일이 밝히지 않아 조병국의 작사가 몇 편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중에서 조병국은 수락교회와 복동교회를 위한 노랫말을 지었다. 〈수락의 경신예배당〉,[56] 〈수락유년주일학교가〉[57]는 수락교회를 위해 지은 노랫말이고, 〈정별가〉[58]는 복동교회 교인들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지은 가사이다.

---

55 『종교가사별집』에는 1번부터 40번까지 41편의 노래 가사가 수록되었고 『찬양가』에는 44번부터 68번까지 27편이 수록되었다.

56 조병국, 앞의 책(2024b), 243쪽.
하늘 비밀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天道渡海東
무궁화꽃처럼 발그스레 피어났네　無窮花發紅
자그마한 마을에 어른과 아이들　十室大小人
속죄받아 영혼 구원 풍속되었네　救靈贖罪風

57 위의 책, 152쪽.
사방 이름 높은 보현산 아래/ 앞으로 시냇물 맑게 흐르고/ 남으로는 약곡 마을은 폭포수 수락교회 경치좋아 아름답도다/ 시냇가 암석들도 기묘하도다/ 고금에 근심없는 수락이로다// 모든 인간을 생명길로 인도하여서/ 십자가를 등에 진 수락 유년들/ 여호와의 축복받은 수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린다/ 영원영원 힘차게 전진하도다/ 천세만세 빛나고 왕성하도다.

58 위의 책, 90~92쪽. 총 5절의 노랫말이다.
4절: 슬퍼하지 않으리 복동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도 생명수로 길러내니/ 돌아간들 그 은혜 잊을쏘냐/ 영원토록 우리 사랑/ 영원토록 잊지 마세.

가사를 살펴보면 조병국은 당시 영수로서 사역자의 소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목사, 장로가 되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인 영수 직분만 11년간 맡았다.

조병국의 토착화는 『관례홀기(冠禮笏記)』[59]에도 찾아볼 수 있다. 『관례홀기』는 유교의 성인식 의례인 관례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적은 글이다. 조병국이 1937년 3월 29일에 열린 장남 조성대의 관례식을 직접 기록하여 남겼다. 조병국은 유교식 관례를 기독교식으로 변형[60]했는데 본래 의례의 시작과 끝을 유교 사당에 고하는 절차를 바꾸어 개신교 예배당에 시작하고 예배당에서 마무리하는 절차로 바꿨다. 그러므로 관례의 순서는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여 삼가례, 초례, 명자례를 거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관례 마침을 고함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관례는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친인척들은 해괴하다고 수군거렸으나 조성대는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학자 제임스 그레이슨(James H. Grayson, 1944~)은 2007년 영국학회지에 『관례홀기』를 소재로 한 논문을 발표[61]했는데 이 독특한 관례가 확산하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당시 1937년은 기존의 유교적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근대 식민지시기였기에 이러한 토착적 관례는 매우 독특한 사례였고 양반 아닌 이들, 또는 개신교 신자층에게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유교식 관례는 양반층의 의례였다.

> 예로부터 우리 도덕생활의 표준은 충(忠), 인(仁), 예(禮). 의(義), 신(信) 등의

---

59 조병국, 앞의 책(2024a), 11쪽.

60 위의 책, 11쪽.

61 James H. Grayson, "A Failed Attempt at Christian Accommodation to Confucian Culture: The Kwallye Samga of Korea," *Asian Folklore Studies,* Vol. 66(2007), pp. 125~140.

미덕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충, 불의, 부정, 비인, 무례, 배신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것이다. […] 불충은 그릇되다. 그릇된 것은 그저 그릇되게 굽어진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곡선의 사상을 배격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덕의 직선사상을 크게 숭배하여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하면 악이 나온다. […] 역사의 항목에는 충신과 열사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간신과 협잡의 괴걸들도 또한 나열되어 있다. 전자는 처세에 직선을 예찬하고 후자는 처세에 곡선을 예찬한다. […]

예수의 직선사상은 유대교의 방해를 받았다. 지금도 그렇다. 곧은 자는 때때로 불우하게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데 곱은 자는 단체로 나타나서 망령되게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 죄인의 길은 매우 굽었고 결백한 자의 행위는 곧다. '수양곡선론'[62]

「수양곡선론(修攘曲線論)」은 일종의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짧은 산문이다. 조병국은 이 글에서 유교와 개신교의 가르침을 곡선과 직선으로 시각화하여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는 교훈을 전한다. 먼저 '충, 인, 예, 의, 신'의 유교 이념을 어기거나 뜻을 굽히지 말 것이며 기독교의 사상, 예수의 가르침 역시 직선이니 뜻을 굽히지 말고 지키라 한다. 마치 조병국이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차례 고문받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직선사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수양곡선론」은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63]라는 구절이 연상되는 글이다.

---

62 조병국, 앞의 책(2024a), 231~232쪽.

6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우리 제현(諸賢)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본받아서 일에 착수하고 시작을 도모함에 문덕(文德)을 크게 펴고 경솔하게 태만하거나 불공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도를 어기고 덕을 손상하며 망령된 행실을 하는 흉한 일에 대해서는 목사(牧師)가 그 불복종을 바로 잡을 것이나 우리 제현은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여 구하면 하는 일마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예배(祭祀)는 현사(賢士)를 맞이하는 일이기도 하니, 위에서 아래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존현(尊賢)의 예절이다. 목회에서 목사가 한 세상을 구제할 때 민(民)들이 그 요구에 응답하시니 이는 귀하디귀한 성례(聖禮)이다.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 제사를 통해 하는 일마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성신(聖神)이 강림하사 신인(神人)이 조화로써 길하게 됨에 있어 우리의 생각이 하늘 도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64]

이 인용문에서 조병국은 유교 경전의 가르침을 기독교와 연결했다. 글의 앞에서 덕(德)과 경(敬), 성(誠)을 따라 이치와 행실을 논하며 제현(諸賢)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도와 덕을 손상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는 데에는 목사가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목사는 유교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인간의 행실을 바로잡도록 돕는 존재, 유교 이념을 수호하고 따르도록 경책(警責)하는 선생, 교사처럼 묘사되었다.

즉, 조병국은 유교 이념을 하늘의 도(道)이자 동시에 개신교 하나님의 뜻과 연결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롭게 하는 존재, 즉 유교 이념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존재이다. 기도하면 구하는 일마다 이로울 것이며 예배는 현사(賢士)를 맞이하는 일이므로 유교 이념을 따라 스스로 살피고 성찰하며 성화(聖化)되어 살아가라고 권면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세상을 구제하는 것으로 성례를 통해 성신에 감화

64 조병국, 「사군자 모임(사군자회) 남을 위해 말하다」, 앞의 책(2024a), 249~250쪽.

되고 신인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개신교)에, 하늘의 도리(유교)에 부합되도록 살라고 권면한다.

> 예수는 전만세(前萬世)와 후만대(後萬代)의 구주(救主)이시다. 예(禮)와 악(樂)을 제작하셨으니 어디로부터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사귀어 창화(唱和)하고 감응(感應)하니 같은 소리끼리 서로 감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사귀면 마음에 미덥고 외형도 어우러지며 창화하면 정신이 통하고 마음도 맞고 감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유(類)대로 벗을 얻어 사귀기에 작은 이익쯤은 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천지가 사귀려면 그 기(氣)가 같아야 하고 남녀가 사귀려면 그 뜻이 같아야 하고 만물이 사귀려면 그 일이 유(類)여야 한다.[65]

조병국은 분명 유교의 천(天)을 개신교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 성령을 동일하게 인식하며 예수를 온 시간대를 초월한 절대자, 구주이며 예(禮)와 악(樂)의 제작자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유교 이념에 따라 하늘의 뜻에 맞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바를 유교와 기독교가 가르친다는 맥락에서 연결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유교 이념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하늘 아버지(天父) 만나면 품물(品物)이 모두 순조로워져서 삼위(三位) 하느님이 신묘하게 도우시리니 여러 군자들은 서로 만나거든 이렇게 만나서 집회하는 의의를 협력하여 크게 행하되 적기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위에서 궁한 어려움도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도로 아래로 내려가나니 끝내는 허물이 없게 되리라

---

65 위의 책, 251쪽.

우리 군자들께서 스스로 낮추고 낮추니 길함이 크게 도래할 것이다. 낮음이란 높음의 시초이고 아래란 위의 근본이다. 믿음이 약해진 경우란 믿음이 회복될 시작의 기미이고 음(陰)이 심해지는 경우란 양(陽)이 줄어들 조짐인 것이다. 천국은 군자들의 집이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그분이 아래를 후하게 하여 그 집을 편안하게 하시리니 마침을 돌아보아야 시작의 근원을 알 수 있다. 마침은 길해야 한다.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번 생의 문이 닫히는 흉함이 있어도 정(貞)의 마침이 원(元)의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는 형통함으로 원을 시작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생을 마쳐야 한다. 마칠 곳을 알아 마치기에 더불어 의를 보존할 수 있으니 생각이 그 마침에 합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보혈의 공으로 마침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군자들은 지금 생애에 기이하게 만났다 해도 다음 생에 천당에서 다시 화합하게 되리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크다. 병술년(1946) 12월 조해창은 죄스러움을 무릅쓰고 황공하게 기록한다.[66]

이 글은 1946년 12월에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병국 부자는 일경으로부터 고난받은 시간이 길었지만 다행히 부자는 살아서 해방을 맞았다. 위의 인용은 조병국 부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하나님)이 때에 따라 형통하게 풀 것이니 그저 뜻을 지키며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두움이 다하면 밝음이 오는 것처럼 주역의 이치를 따르면서 살되 설령 죽음에 이르러도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조병국에게 유교 이념과 개신교 구원의 교리는 맞닿아 연결되었다. 이생에서 겪는 고통이 크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기꺼이 겪는다는 자세를 볼 수 있다.

---

66 위의 책, 254~255쪽. 밑줄은 인용자.

"천국은 군자(君子)들의 집"이라는 말은 조병국의 독특한 토착적 표현이다. '군자'는 분명 유교적 배경이 깔린 용어이다. 유교 사상의 변천에 따라 군자의 의미도 변화했다. 본래 군자는 '군주의 아들'을 의미하지만 공자는 도덕과 학문이 뛰어난 이로 정의했고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다. 조병국에게 '군자'란 유교 이념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Ⅵ.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해창 조병국의 생애와 활동을 분석하면서 유교 지식인의 토착적 기독교 이해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 글은 한국 개신교 초기사에서 선교사(宣教史)에 대응하는 수용사(受容史)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적 신학, 토착화 신학의 측면에서도 조병국의 연구는 의미가 있어서 향후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조병국의 문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교 이념이 기독교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의 이치를 지키고 사는 것을 강조하는 유교 이념이 곧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정신과 연결되므로 상제가 곧 하나님으로 이어진다. 그에게 목사란 유교 이념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생과 교사 같은 역할로도 표현된다. 여기서 목사는 유교 이념과 기독교를 연결하여 두 개의 정신을 함께 융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실천하도록 돕는 존재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유교와 기독교는 상반되거나 상충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연결된다.

본론에서 필자는 조병국의 연구 의의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선비 한학자, 독립운동가, 교육가, 토착적 기독교 이해이다. 각 네 개의 분류 안에도 유

교와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접목과 융합은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충성하며 섬기라는 뜻이다.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하라는 의미이며 조병국은 실제로 그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신사참배 거부자,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도 조병국은 중요한 인물이다. 나아가 유교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접목하고 융합하여 애국과 항일, 교육활동으로 발현하며 산 인물, 조병국 연구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수락교회(편),『主後 1952年 水洛教會 四紀』, 1952a.

수락교회(편),『主後 1952年 水洛教會 堂會錄』, 1952b.

2. 논저

권대웅,「한말 의병활동의 전개와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재개관 기념 학술회의』, 2023.

김승태,「재판 속의 3.1운동」,『기독교사상』711, 2018, 23~33쪽.

박경목,「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성」,『인문과학연구』26, 2018, 35~108쪽.

박영웅,「조선 후기 '두문동 72현'의 인식 형성과 변천」,『한국사학보』98, 2025, 225~260쪽.

안광덕,「조병국 영수가 유교와 초기 개신교 만남에서 보여준 삶과 토착화 신앙」,『경안노회 초기 교인 독립지사 이상동 장로, 조병국 영수 연구포럼 자료집』, 안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2025.3.13, 26~38쪽.

이혜정,「1957년 개신교 찬양집『백합화』연구: 교술성·유동성·접근성을 중심으로」,『종교연구』82-3, 2022, 37~62쪽.

이혜정,「선비 기독교인 조병국의『해창유고 별집』연구」,『2025 대순사상학술원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5.4.12.

정중호,「시온산 제국 기독교인의 항일운동」,『신학사상』129, 2005, 231~254쪽.

조병국(저), 박규홍(역),『海蒼遺稿 別集』,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a.

조병국(저), 서현경(역),『海蒼遺稿』,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b.

한국교회사학회(편),『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68.

Grayson, James H., "A Failed Attempt at Christian Accommodation to Confucian Culture: The Kwallye Samga of Korea," *Asian Folklore Studies,* Vol. 66, 2007, pp. 125~140.

3. 기타

디지털청송문화대전, https://cheongsong.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국문초록

조병국(趙炳國, 1883~1954)은 청송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평생 유교 한학자로 살면서 항일운동, 독립운동,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그가 남긴 문집에는 유교와 기독교의 접목이 잘 나타나 있으며 한국적 기독교, 토착적 기독교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본문의 Ⅱ장은 선비 한학자 조병국이 그의 가문과 생활에 배인 유교의 정신과 유교적 건국이념을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독립운동가 조병국이 전개했던 청송 화목장터 만세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교육가로서 조병국이 유교와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분석했고 학교설립활동을 고찰했다. Ⅴ장에서는 조병국의 독특한 토착적 기독교 이해를 '외유내기 내유외기(外儒內基, 外基內儒)'의 특징으로 분석했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1. 1.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조병국(Cho Byeong-guk), 항일운동(Anti-Japanese Movement), 3.1운동(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토착적 기독교(indigenized Christianity), 유교와 기독교(Confucianism and Protestantism)

Abstract

Outer Confucianism, Inner Christianity: The Indigenized Theology of Cho Byeong-guk

Lee, Hyejeong

Cho Byeong-guk (1883–1954) was a prominent anti-Japanese and independence activist from the Cheongsong region. He remained a Confucian scholar throughout his life, actively engaging in anti-colonial resistance,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educational initiatives. His collected writings notably reflect a synthesis of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offering valuable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ized and indigenized form of Christianity.

Chapter II analyzes Cho Byeong-guk as a Confucian scholar, focusing on the Confucian spirit and founding ideology embedded in his family heritage and daily life. Chapter III examines his role as an independence activist, particularly his leadership in the Cheongsong Hwamok Market March 1st Movement and his resistance to Shinto shrine worship. Chapter IV explores Cho's educational philosophy, highlighting how he integrated Confucian and Christian values in his teachings and his efforts to establish schools. Chapter V investigates Cho's unique understanding of indigenous Christianity, characterized by the dual principles of "external Confucianism, internal Christianity" and "external Christianity, internal Confucianism."